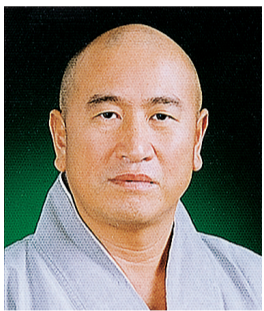


## 무공저

### 천재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건을 경전에서는 '맹우우목(盲龜遇木)' 즉,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판자를 만난다 라고 한다. 부처님은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판자에 뚫린 둥그런 구멍에 우연하게라도 목을 끼워 넣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로, 그의 과거 현재 미래 즉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최근 우리를 기쁘게 하는 멋진 두 사람의 소식이 들려왔다. 반 클라이번 콩쿨에서 우수한 임윤찬 군과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이다. 뉴스를 접하고 가장 놀

인문학,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숨어있다고 느낀다. 두 번째는 노력이다. 임윤찬은 하루 16시간 피아노 연습을 하고 허준이 교수도 종이 모자랄 정도로 논문을 읽고 연구한다고 한다. 재능과 노력을 비교할 때 노벨상 수상자들은 모두 남들과 차별화된 노력이 몸에 밴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즐기는 모습이다. 임윤찬은 산속에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고 한다.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사람없는 식당을 찾는 허준이 교수와 닮았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외에는 무관심인 점도 닮았다. 네 번째는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눈을 떠주게 해준 스승의 존재이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분야를 찾아 나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두사람 모



중 상  
(청계사 회주)

### 인간을 이해하려 노력...자신의 일 즐겨 집중과 몰입, 끈기를 가능케 하는 재능

라운 것은 순수 국내파로 반 클라이번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임윤찬 군의 18세란 나이가 믿기지 않는 현숙함이다. 연주를 위해서 단테의 신곡을 외울 만큼 읽고, 우르크의 가야금 연주를 생각한다고 한다. 또한 허준이 교수가 수학으로 전공을 확정한 계기는 일본인으로 필즈상을 수상한 히라나카 헤이스케 하버드대 명예교수의 강연을 듣고서라고 한다. 석학의 존재가 자극이 되었고 미국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업적을 쌓기에 유리했을 것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눈에 띈다. 우선 허준이 교수가 1년동안 도서관에서 소설책만 읽었다고 하고 글을 쓰는 것을 즐겼다는 것이다. 임윤찬 군은 은사의 스승이 인류학을 전공했고 인문학적 이야기의 소중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넓게 표현해서

두 해당분야의 깊은 공부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천재는 수재와 무엇이 다른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천재인 에디슨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수재도 천재도 노력하기는 마찬가지지만 1%의 영감, 천재성이 둘을 가른다는 것이다. 자격수로 치면, 수재는 아무도 맞히지 못하는 표적을 맞히고, 천재는 남들이 볼 수조차 없는 표적을 맞힌다고 천재인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천재는 비전 혹은 상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각각 타고난 그릇이 있다. 그릇에 재능이 될 담겼다면 사랑, 관용, 겸손 혹은 미모나 건강 등 다른 가치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의 삶을 산다.

## 계율 수지, 보시행 실천, 지혜 얻고자 노력

### 마법회 창립 5주년 기념법회 봉행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마법회(한국 마사회 법우회)는 지도 법사인 총무 성견 스님을 모시고 설법전에서 창립 5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새로 선출된 윤석종 회장의 환영 인사와 정계사 총 신도회 무상행 회장님의 축사, 연합불자협회 김화자 회장 등 내빈과 40여 명의 마법회 회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법회에서 지도법사인 성견스님은

선물로 영주를 한 분 한 분 전해드리면서 불안함이 많은 현대인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이행도: 易行道]으로 영물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주를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울 때마다 영주 구슬을 하나씩 돌리면 번뇌가 소멸되어 안락함을 얻는다."는 경전의 말씀을 전했다. 누구나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마음이 고

요해지고 고요해지니 사물을 보는 안목이 넓어져서 본래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는 인연법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인들의 근심 걱정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현재 지금의 자리에서 열심히 계율을 잘 수지하고 널리 사람들에게 보시행을 쌓고, 스스로

지혜를 얻고자 노력한다면 미래의 좋은 일은 저절로 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러면서 커다란 바위를 혼자 힘으로 들고 가기는 힘들겠지만, 배에 싣고 바람의 힘에 의지한다면 하루에 능히 천리도 갈 수 있듯이 마법회 회원들도 불보살님께 의지하면서 수행을 열심히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문했다.



### 생활의 지혜

## 이야기 백유경

### 서른 여섯 개의 상자를 짊어진 신하

### 자유인으로 살기와 노예로 살기

○.....열 사람이 있으면 열 사람의 모습과 생각이 제각각 다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이야기하며 살아야 한다. 그 솔직함 속에 바로 자기가 있기 때문이다. 남의 생각을 따라할 필요 없이, 자기 느낌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남을 의식해 나의 생각을 잃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과 권력으로 부터 벗어나 돈과 권력을 부릴 줄 알지만, 돈과 권력이 영원한 것이라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은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평생

옛날 한 왕이 무우원(無憂園)에 들어가 즐겁게 놀기 위하여 어떤 신하에게 말했다. "그대는 껌딱 하나를 들고 저 동산으로 가서, 내가 앉아 있을 수 있게 하라." 신하는 남 보기에 창피스러워 들고가지 않고 왕에게 아뢰었다. "저는 들 수가 없습니다.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서른 여섯 개의 껌딱을 그의 등에 지우고 그를 계속하여 동산으로 갔다. <예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여자의 털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계율을 지킨다"고 하며 그것을 집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그 뒤에 번뇌에 물리어, 서른 여섯 가지 물건, 즉 탐, 오, 미, 동, 오중 따위의 더러운 것도 더럽다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서른 여섯 가지 더러운 물건을 한꺼번에 전부 붙잡고도 부끄러워하는 생각이 없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껌딱을 지는 것과도 같다.

돈과 권력에 얽매어 산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과 정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육신과 정신의 굴레에 빠져 평생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는지 가까이 내 주변부터 되돌아보자. ○.....지금 내가 앉은 자리를 보라. 나는 이곳에 있지만, 주변은 모두 남으로 되어 있다. 남의 나무, 다른 사람, 남의 바닥 가운데 내가 앉아 있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

자. 아무리 돌아본 들 내게서 뱀새도, 소리도 나지 않는다.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원래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며, 태어난 적도 없는 존재라는 원리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휴먼한 한 생각을 깨닫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바르게 했다면, 하루 만에 깨닫던지, 일주일 만에 깨닫던지, 아니면 몇 년 안에 못 깨달을 리 없다고 불보살님들은 가르쳤다. 어느 경우라도 자기를 망각하지 말고, 확실한 나를 지킨다면 실사 대조를 지은 과보로 지옥에 가더라도 곧 해탈할 것이라고 한다.

###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 \*법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김예솔 500부 박민주 100부
  - ♣ 안양교도소 일동포장기계 150부 김희용 50부, 김정중 50부 박경선 50부
  - ♣ 수원구치소 김향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조수환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정중순 50부, 김태희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손준형 50부, 박민호 50부
-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 백중·칠석·학업성취 백일기도 안내

### 백 중

- 입 재: 불기 2566년 6월 25일(음력 5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회 향: 불기 2566년 8월 12일(음력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기도안내: 초계 7월 1일부터 6계 8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사시에 제사를 지냅니다.
- 기도비: 5만원
- 영가위패: 1위당 5천원
- 영가 등: 1만원
- 쌀 3되 (제일 때마다 영가에게 공양을 올리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치약, 칫솔, 비누, 세숫대야, 양말, 수건, 영가 옷 등은 회향일(음 7월 15일)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영가 옷(종이 옷)은 신도회에서 판매합니다.

### 칠석기도

- 입 재: 불기 2566년 8월 4일(음력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기도비: 3만원
- 차량안내: 백중기도 입재와 회향, 칠석 때 오전 7시, 8시, 9시, 10시, 11시 인덕원 전철역 3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미가람치 앞에서 걸 버스를 운행합니다.
- 문의: 총무소 (031) 426-2221, 2348
- 은행계좌: 109-058786-01-413 기업은행 (예금주: 청계사) ※ 송금 시 총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 학업성취 백일기도

- 입 재: 불기 2566년 8월 10일 수요일
- 회 향: 불기 2566년 11월 17일 목요일
- 기도비: 15만원
- 학업성취등: 5만원
- 차량안내: 입재일 오전 7시, 8시, 9시, 10시, 11시에 운행합니다.
- ※ 매일 10시 30분 사시기도와 오후 2시 특별기도 있습니다.



### 선요

우리나라 조사선의 전통이 뿌리내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요(禪要)>는 중국 남송시대 임제종의 맥을 이은 고봉(高峰)스님의 법문집으로 강원에서 사집과의 학인스님들이 배우는 과목이다. 고봉스님은 이 책에서 자신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본래성불(本來成佛)과 순간 깨침을 말하면서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하근기 사람을 위해 참구깨침의 방편으로 선을 소개하고 있는데, 화두를 참구해서 확철대오에 이르는 단계마다 필요한 요소나 경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편집자주>

## 仰山老化尙의 법을 이을 것인가 하는 의심을 통한 글 (通仰山老化尙疑書)

옛날 실패한 것을 친히 일찍이 스님 앞에 고백하였는데 오늘 거듭 의심하십시오 처음부터 드러남을 먼저 못합니다.  
제가 十五세에 출가 하여 十六세에 중이 되고 十八세에 교를 익히고 二十세에 옷을 갈아 입고 正慈寺에 들어가 三년 死限을 세우고 선을 배우고자 하여 斷橋화상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었다니 한 날 “生從何處來 死向下處去”(날 때는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죽어서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화두)를 참구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뜻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지 않고 또 일찍이 저(단교스님)가 말씀하신 공부하는 방법이 분명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어느덧 一년 이상을 엄병담병 하였습니다 매일 단지 한 날 길을 맨사람과 같았습니다.

매일 겨우 들어움을 보시고 문득 묻되 “오늘 공부하는 어떠한가?” 하시어서 말이 두서가 있음을 보이고는 뒤에는 공부한 곳을 묻지 않고 한번 문에 들어갈 때마다 문득 묻기를 “누가 너더러 죽은 송장을 끌고 오라 하더냐?” 하면서 소리가 끊어지기도 전에 아픈 주먹으로 쳐 모아 냈습니다.  
매일 단지 이렇게 묻고 이렇게 치시니 바로 꼬치꼬치 묻는 것을 입에 조그만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노화상이 南明寺(조실로) 청을 받고 떠나시게 되자 부촉해 이르기를 내가 가서 임원해 마치고 문득 사람을 보내 너를 데려 가리라. 하고 떠났는데 뒤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 화두 세우고 선 배우고자 하여 斷橋화상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生從何處來 死向下處去” 날 때는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죽어서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

어둠속에서 등불 얻은것 같고 거꾸로 매달린 이가 구제 받는것 같아

이 때에 三년 死限이 다 되어서도 다만 번뇌 가운데 있었는데 홀연히 台州 정령을 만나니 설암화상이 항상 너의 공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한 번도 가지 않는가? 하였습시다.  
이에 기뻐 향을 품고 三塔寺에 나아가 일러 주기를 청할 세 바야흐로 문안하면서 향을 품으니 한바탕 아픈 주먹으로 치어내고 곧 문을 닫아버려 한길로 눈물을 흘리며 승당에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공양을 마치고 다시 올라가 비로써 친히 보오니 곧 이전의 공부한 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일러바치니 그 자리에서 문득 일전에 쌓인 병들을 가볍게 없애주시고 도리어 한 개 無字를 간하라 하였습시다.  
머리로 조차 빌하여 한바탕 공부를 지으니 어둠 속에서 등불을 얻은 것 같고 거꾸로 매달린 이가 구제를 받은 것 같아 이로부터 바야흐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또 하여금 날마다 위로 一轉에 오되 써 공부 자체 보기 요함을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 날마다 공부를 보기 요한 것 같이 하니 오늘도 이렇게 하고 내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시다.

곧 恒州 澤兄으로 더부러 벗을 맺고 함께 가다가 왕가교 俗親家(친정)에 이르러 행장을 정돈하니 뜻밖에 숙친께서 저희들이 나이 어리고 또 일찍이 길을 건내지 못했다 하여 행장과 도침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때가 二月 초입니다.  
諸方의 방부에 다 가히 찾지 못하므로 보따리를 짊어지고 慶山寺에 올라 감을 먼저 못해서 이월 십오일 승당에 들어갔습시다.  
문득 다음날 十六일밤 꿈에 홀연히 단교화상이 가르켜주신 “萬法歸一 歸何處” 화두가 생각나 이로부터 疑情이 頓發하여 打成一片, 바로 동서를 가리지 못하고 침식을 잊었습니다.  
제六일 辰巳(七시부터 十시) 사이에 이르러 냇가를 걸어 오다가 여러 스님들이 당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不覺) 대월 가운데 쉬어 三塔寺 영각에 올라가 경을 외우다가 머리를 들고 홀연히 오조演和尚의 眞影 贊 末後兩句 즉 “백년 삼만 육천조에 원래 이놈이 반복한다” 한 것을 보고 일전에 노화상께서 물으신 “죽은 시체를 끌고 오라 하더냐?”  
**덕민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

## 방편의 바다-비유의 가르침

# 법 화 경

### 수기품(授記品) 줄거리 <하>

석가모니부처님의 '수기(授記)'에는 헤아릴수 없이 긴 세월 동안의 수행이 전제되어있다. 미래에 부처가 된다는 말은 무량겁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불도를 닦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앞의 제2 '방편품'에서는 만선성불(萬善成佛) 즉 아무리 사소한 선행을 짓더라도 성불한다는 가르침이 있었다. 만선성불 사상에 따르면 수기를 받거나 받지않거나에 관계없이, 불도를 닦기만 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기는 만선성불의 가르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만선성불의 가르침도 일종의 수기다.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예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선성불은 원칙론적인 가르침일 뿐인데, 그 이유는 누구나 수행하면 성불한다는 일반론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교해 수기는 특정한 사람의 장래를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것이다. 어떤 제자에게 수기를 준다는 것은, 그 제자가 과거에 닦아 온 것을 보고 미

래에 닦아 나갈 것을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을 뜻한다. 수기를 받는 사람에 대한 깊은 믿음이 전제된 것이다. 그래서 수기는 만선성불 사상의 일반원칙론적인 수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구체적인 수기라고 할 수 있다.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중생에게 부처가 될 씨앗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씨앗이 없는 열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불성이다. 이 불성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이를 3인불성(三因佛性)이라고 부른다.  
3인불성은 △정인(正因)불성 △요인(了因)불성 △연인(緣因)불성 을 가리킨다.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경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묘법연화경』으로 제목에 연꽃의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친 말법 시대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화경』을 수시로 외고, 쓰고, 전하면 인생살이가 한결 즐거워질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우울한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에는 빠져나갈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있기에 그 문을 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불경연구가 페이융 교수의 저서 『법화경 마음공부』를 중심으로 편집부에서 정리해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정인불성은 진여 또는 진리 그 자체를 말하고, 요인불성은 그 진리를 알아보는 지혜를 뜻한다. 그리고 연인불성은 진리를 알아보는 지혜에 의해서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수행을 의미한다.  
이 3인불성 가운데 정인불성은 선천적인 것이고, 요인불성과 연인불성은 수행에 의해서 개발되어지는 것이다. 수행으로 얻어진다고 해서 없던 지혜나 수행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이지만 미혹 무명에 빠져서 알아보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천에 의해서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다.  
3인불성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다른 데서도 나타난다. 경지행(境智行), 삼법

(三法), 법보화(法報化), 삼신(三身), 불법승, 삼보(三寶) 등등의 예가 그것이다. 모두 진리, 지혜, 수행의 세가지를 염두에 두고 분류한 것이다.  
수기는 무량겁을 닦은 다음에야 성불할 수 있다는 예언이다. 즉신성불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즉신성불과 무량겁이 지난 다음에의 성불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즉신성불과 수기성불의 차이는 시간에 있다. 하지만 시간에 구속되는 것은 중생의 단계이다. 성불하게 되면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한다. 성불한 이에게는 찰라가 영원이고 영원이 찰라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수행해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면 이 자리에서 성불하거나 무량 겁을 지난 다음에 성불하거나 아무 상관도 없다.  
시간을 따지는 것은 아직 중생의 단계에 있다는 징표이다. 그래서 참으로 수행의 길에 들어설 때, 즉신성불과 무량겁이 지난 후의 성불이 다를바 없게 된다.

### 무량겁을 닦은 다음 성불할수 있다는 예언 성불은 중생에게 부처될 씨앗 있음을 전제

### 뉴스&뉴스

#### 6월 초하루기도

6월 29일(음력 6월 1일) 야외법당과 각 전각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하여 사시 예불을 봉행했다. 주지스님은 세계평화와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나아가 불자들의 가정마다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비 오는 날의 초하루 범회를 맞았다.  
이어 불교대학 동문회를 이끌어주시는 안권 교문님이 소임을 다하여 감사패 전달식을 했다.



그동안 불교대학 동문회를 이끌어오면서 사찰의 중대사, 소좌, 대좌 불사에 동참한 공로에 감사하여 갖게 된 자리이다. <글 서용화수>

#### 감자 캐기 울력

장마가 지속 되어 감자 캐는 날을 미뤄오던 중 7월 4일 오전 7시부터 청계사 자비나눔 봉사자 80여 명이 운집하여 감자 캐기 울력을 했다. 습한 무더위 속에서 서로서로 힘내라 격려하고 썩 감자를 나누어 먹으며 저마다 저력을 가지고 작업에 임했다.  
수확된 감자들은 주변의 사찰과 녹향원, 청계사 불자들을 점심 공양으로 나누어 먹게 된다. <글 서용화수>



## 수자령 영가를 천도하는 이유와 공덕

우리는 보통 태아 영가 또는 수자령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태아는 임신 첫 주부터 임연한 인격체라고 생각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낙태(墮胎)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연간 250여만 명의 태아가 낙태 또는 사산·유산 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무주고 혼이 되어 갈 길을 잃고 헤매는 미생태 아를 불신으로 제도해야 한다.  
불교에서 낙태 행위를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교가 극단적인 종교는 아니다.

계율(戒律)도 마찬가지이다. 그 바탕에는 항상 중도정신(中道精神)이 깔려 있다. 중도라는 것은 계율을 지켜야 할 때는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들도 불살생계가 있어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나 나라가 위태로울 때 승군을 일으켜 적을 무찌를 때는 살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과 같이 불교에서는 열고 막는 즉 개차법(開遮法)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도 있다.

낙태 문제도 이와 같다. 될 수 있으면 낙태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겠지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후속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천도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태아 영가 즉 수자령은 낙태를 하고 나서 10년 정도까지는 어머니의 주위를 돌면서 그리워한다고 한다.  
불설귀자손경과 법화경 다리니품에 나오는 귀자모신(태아영가를 보호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귀신 대왕의 처인 야차녀가 어린이 살생을 부처님 전에 참회하여 앞으로는 세세생생(世世生生) 10세 미만의 어린이나 낙태아를 제도하는 해산·유아 양육의 신이 되겠다

고 서원한 기록을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태아 영가는 성인 영가보다 빨리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10년이 넘으면 그리움이 증오로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아 영가가 끼칠 해가 무서워 천도제를 지낸다기보다는 도의적인 면에서 그리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죽은 태아를 연민하는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면 그 공덕으로 인하여 태아 영가가 설사 다른 몸을 받아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천도제의 음덕이 곧 공덕으로 간다. <정리 주향진성>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말에 능하지 않고

말에 능한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떠벌이지 않고

떠벌이는 사람은 대개 지식이 없습니다.

—노자



마음밭에 무얼 심지? 중에서

### 바람 같은 말







##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100

관음성지 ㉔

### 반야사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게 중창하였다. 세조가 이 절에 들렀을 때의 설화가 전한다. 세조가 대웅전에 참배하자 문수동자가 나타나더니, 세조를 절 뒤쪽에 있는 망경대 영천으로 인도한 후 목욕을 하라고 권하였다. 세조가 목욕을 시작하자, 문수동자는 왕의 불심이 지극하므로 부처의 자비가 따를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는 사자를 타고 사라졌다. 건물로는 대웅전·극락전·산신각·백하루 등이 있다. 이 중 극락전은 1993년까지 대웅전으로 쓰인 건물로 1975년 중수한 바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조선 중기 건축양식으로 지어

아 고려 시대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신라 석탑의 전통을 계승한 동시에 충청도와 전라도 일원에 건립된 백제계 석탑의 양식을 확인할 수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371호 석탑은 단층 기단에 세워진 것으로, 1950년 성학스님이 절 동쪽 500m 부근에 흩어져 있던 탑재를 모아 세웠다. 전체 높이는 315cm이다. 흩어져 있는 탑재를 수습하여 세운 관계로, 초층 옥신은 원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대석을 양각하고 1층 기단석을 이루고, 기단석에는 우주와 탱주를 양각하고 1층

반야사는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지장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범주사의 말사이다. 반야사는 728년(성덕왕 27)에 의상대사의 10대 수제자인 상원화상이 창건하였다고 하며, 일설에는 문무왕(재위: 661~681)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도 전한다.

예로부터 이 일대가 문수보살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져 절 이름을 반야사라 하였다. 반야는 바로 문수보살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절이 들어선 지장산이 백화산이라고도 불리므로 관세음보살이 머문다는 설도 있다. 1352년(고려 충숙왕 2)에 중건하고, 1464년(조선 세조 10) 세조 임금의 허락을 얻어 크



◇부처님 사리 봉안된 수마노탑

## 신라백제계 석탑 양식 계승한 고려 3층 석탑 형태독특한 부도, 원반모양 옥개석·원통형 석재

졌으며, 내부에는 아미타삼존불과 후불탱화가 모셔져 있다. 대웅전은 1993년에 지어진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내부에 석가모니불을 본존으로 하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불로 한 삼존불이 모셔져 있고 불상 뒤에는 영산회상도와 신중탱화·감로탱화가 있다. 유물로는 요사에 있는 신중탱화와 삼층석탑이 유명하다. 신중탱화는 화기(畵記)에 따르면, 원래 보국사에 있던 것으로 이 탱화를 누가 언제 반야사로 옮겨왔는지는 알 수 없다. 반야사 삼층석탑은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

옥신은 석등의 화사석과 같이 전후로 꺾였고, 2·3층 옥신에는 우주각이 명확하지 않다. 옥개의 처마는 둔중하고, 옥개 받침은 4단을 이루고 있으며 상륜부에는 4각의 노반부가 남아 있다. 절 남쪽 100m 쯤에는 부도 2기가 전하는 데, 그 중 하나는 탑신 위에 원반 모양의 옥개석을 놓고 그 위에 원통형 석재를 올린 것으로 형태가 매우 독특하다. 이 밖에 왕이 죽었을 때 그 영위를 봉안하는 영위판과 문수동자가 탕다는 목각사자 등이 전한다.   
 (정리 여여광)

## 사찰음식 배워보기 **느타리버섯 초무침**

\*재료: 느타리버섯 1팩(200g), 오이 1/2개, 대파 1/2대, 소금1t, 식초 1T, 설탕 1/2T, 양념장(고추가루 1T, 식초 2T, 꿀 1T, 다진마늘 1/2T, 참깨 1t, 소금약간)

- \*만드는 법:
1. 대파는 어슷 썰고 오이도 길이로 반을 자르고 어슷 썬다.
  2. 썬 오이에 소금, 설탕, 식초에 절인 후 꼭 짤다.
  3. 느타리버섯은 끓는 물에 30초 간 데친 후 찬물에 헹구 물기를 짜고 찢는다.
  4. 불에 느타리버섯, 오이, 대파, 양념장을 넣고 버무린다.   
 (정리 주향진성)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의 하나인 당(唐) 나라 초기 7세기 전반에 육효정(陸孝政)이라고 하는 대수롭지 않은 관리가 살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육효정은 구두쇠여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없었다.

게다가 야비하고 잔인하기까지 했다. 하인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호통을 치고 때리기까지 했다. 5월의 어느 날, 육효정은 집 마당에서 자라는 나무속에 벌통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우 인색한 그는 벌들이 그의 나무를 이용하 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하인에게 그 벌집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벌들이 벌통 주위를 왕왕 거리며 바쁘게 날아다니고 있어 하인은 쓰일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자 육효정은 화를 내며 하인에게 양동이에 물을 끓여 벌통 위에 쏟아 부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 불상생과 방생의 공덕

## 생명사랑 이야기 100

### 89) 벌들의 키스

하인이 펄펄 끓는 물을 붓자 순간 수백의 죄 없는 벌들이 데어 죽었다. 그때서야 흠족해진 육효정은 거실에서 낮잠을 잤다. 곤히 잠들던 그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벌떡 뛰어 일어나 마구 입을 비볐다. 무엇인가 정말로 아팠던 것이다. 거대한 벌 한 마리가 거실 안으로

들어와 육효정의 입을 쓴 것이다. 그의 입은 부어올랐고 고통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신음하면서 큰소리로 울었다. 하인들이 무슨 일인가 달려 왔다. 곧바로 의사를 불렀고 고약을 육효정의 입에 붙였으나 부어 오른 것은 점점 더 커지고 줄어들지 않았다. 육효정은 입을 열 수조차 없었다. 의사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독이 아마 심장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 막을 수조차 없는 육효정은 심신이 매우 약해졌다. 그는 돌이켜 보고 그가 없애버린 벌통을 생각했다. 이것은 그의 잔인한 행동에 대한 결과이리라. 그러나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에 너무 늦었다.

## 독이 아마 심장에 들어갔을 것이오



## 성행스님의

### 원각경 강설(1)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궁극적(窮極的) 경지로 불리는 『원각경(圓覺經)』은 중생 누구나 원각(圓覺)을 갖추고 있으며 그 원각(圓覺)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명(無明)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실천 체계를 제시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이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비롯한 열두 명의 보살과의 대화를 통하여 경이 이루어진 까닭에 12품으로 나누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허깨비 같은 무명(無明)을 여의고 진실하고 뚜렷한 부처의 깨달음에 들 수 있을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원각경』 공부를 통하여 마음의 번뇌를 비우고 또 비워서 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열반의 가르침에 함께 할 것을 발원한다.   
 (편집자 주)

### 경의 개요

#### 1. 경의 대강

『원각경』의 갖춘 이름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이다. 8세기 초 중국에서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경은 등장 직후부터 불교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장 널리 대중화된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이 경은 1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장은 석가모니가 12보살과 문답한 것을 각각 1장으로 하여 구성된 것이다. 제1 「문수보살장」에서는 누구나 본래부터 가진 원각에 환원하기만 하면 생사가 곧 열반이요, 윤회가 곧 해탈이 됨을 가르치고 있고, 제2 「보현보살장」부터 제11 「원각보살장」까지는 원각을 닦고 증득함에 필요한 사교와 실천에 대해 설하고 있으며, 끝으로 제12 「현신수보살장」에서는 이 경의 이름과 신수보살의 방법, 그리고 수지하는 공덕과 이익에 대해 설하고 있다. 원각경의 구성은 서분, 정중분, 유통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서분은 ‘여래의 범화에 함께하다’ 이고 제1분 「문수보살장」부터 제11분 「원각보살장」까지 정중분이고 유통분은 마지막 제12분 「현신수보살장」이다. 원각경의 대의는 널리 함께하여 믿음과 이해 속에서 내적 관찰을 통해 중생구제를 하여 원각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경전이다.

#### 2. 경의 제목 해설

원각경의 갖춘 이름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이다. 대방광원각(大方廣圓覺)은 경의 내용이며 수다라요의경(修多羅了儀經)은 대방광원각을 담고 있는 언교(言敎)이다. 먼저 대방광은 원각의 체(體), 상(相), 용(用)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大)’ 원각의 체가 커서 두루하지 않는 곳 없으므로 대라 한다. ‘방(方)’ 방정(方正)하여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방이라 한다. ‘광(廣)’ 광대하여 활용되지 않는 일이 없어 묘용이 구족함을 광이라 한다. ‘원(圓)’ 대방광의 덕을 구비한 까닭에 그 본체에다 원각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각(覺)’ 자성각체인 본각과 스스로 깨쳐가는 시각과 본각이 있으며 돌이 아닌 구경각이 있다. 다음 ‘수다라(修多羅)’는 계리(契理) 또는 계기(契機)의 계경(契經)이요, 요의(了義)는 대승 궁극의 경전임을 표방한 것이다. 그리고 고경은 수다라의 번역으로서 동일 의미이다.

#### 3. 후대에 미친 영향

원각경은 한글로 일찍 번역되어 사리와 함께 이 경의 이름을 따서 불인 원각사 삼층 석탑안에 봉안되고 숭앙되어 왔다. 수많은 대장경 가운데에서 규모로는 『화엄경』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 내용만은 독보적으로 빼어났다는 정평을 받고 있다. 오늘날에도 승속을 막론하고 불교인들의 범명이나 신행 단체 등에 원각이란 이름을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볼 때, 『원각경』은 계속 기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정계사 설법전
-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 문 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 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정계사)

### ※ 차량안내

미가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한국스카우트 캠퍼리” 참가 안내

1. 행사명 : 한국스카우트 100년, 불교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캠퍼리
2. 행사기간 : 불기 2566(2022)년 8. 5(금) ~ 8. 7(일) 2박 3일간
3. 장 소 : 경남 하동청소년수련원
4. 대 상 : 어린이·청소년법회 회원, 불교스카우트 대원
5. 주요 프로그램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습, 레크리에이션, 하이킹, 수영, 숲밧줄놀이, 캠프파이어, 장기 자랑, 명상, 108배, 미니올림픽 등
6. 지 급 품 : 기념 티셔츠, 참가장, 향건, ID카드 등
7. 참 가 비 : 어린이·청소년 80,000원, 성인지도자 100,000원
8. 신청방법 : 2022년 7월 27일(수)까지 단체인청서를 이메일 또는 카톡 접수 후 참가비 입금
9. 문의처 : 청계사 010-4899-1826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
산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달의 후원금
금 3,710,00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 하
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
확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
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후원자님
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
하지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
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
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전덕혜, 김태호,
354-A지구
국제라이온스클럽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비둘기캠프

전통무예 프로그램 체험 크게 기뻐해

지난 7월 13~14일(1박2일) 사단
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에서 진행한 비둘기 캠프를 다녀
왔다.
경기도 시설 전체가 모여 진행
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시설 자체 진행으로 변경
되었다.
경기도 광주 있는 펜션을 숙소
로 잡고 남한산성 전통무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을 진행했다. 첫
날 비가 많이 와서 외부활동 대신 내부 활
동 위주로 체험을 진행하였다.



전통무예 관람과 체험을 해보았으며, 강
사는 전통 무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우
리 민족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활을 사용
관람했다.

하였다든 말을 들었다. 활을 보고
각각의 명칭을 알려 주었고 그리고
나서 국궁을 사용해 보았다.
권기범씨는 활시위를 당기고
놓지 못하여 활을 쏘는 것에 어려
움이 보였지만 강사의 도움으로
활을 사용해 크게 기뻐하였다.
전통 무예 의상을 보고 설명도
듣고 좋아하는 병장기를 들고 모
여서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 다
음 날 날씨가 개어 남한산성 동문에 도착,
5번 코스로 등반하며 즐겁게 산성 주변을
관람했다. <글 사회복지사 이대환>

Table with 6 columns: 수입, 지출, 전월이월금, 수입, 지출, 차기이월금. Data for 2022년 6월 1일 ~ 6월 30일까지.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2년 6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List of donors and amounts: 직접 후원 (5,000원-정계영, 김중호, 가 진, 10,000원-한유영, 김영숙, 김순임, 손선중, 변일용, 박경선, 유종경, 유수연, 유성화, 임현재, 박정현, 이인숙), 자동납부 (5,000원-김경숙, 심영화, 김기범, 한승호, 이환영, 김미현, 10,000원-주은숙, 한경원, 김일남, 이귀라, 한승연, 이태동, 박미자, 한준수, 한의석, 임세이, 윤석호, 이고은, 한지윤, 김선영, 우용욱, 노경숙, 한금자, 이수호, 김희면, 이인숙, 하용권, 권돈희(은 경), 정현식, 원은희, 이금선, 원영수, 권은정, 조학래, 신영선, 서연순, 손순순, 박경수, 김창식, 윤미애), 15,000원-박성준, 신영욱, 20,000원-김재태, 박정선, 백국덕(최준영), 고 준, 광경희, 박정목, 박은영, 김대희, 신지현, 이미애, 박민주, 이원철, 김나현, 보람광고, 30,000원-윤재규, 송생규, 이영순, 김민경, 김경연, 구은정, 40,000원-정희윤, 50,000원-이종우, 주준호, 김중철, 진항하, 안혜경, 100,000원-유병주, 관음성(오행자), ㈜범양전력,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250,000원-㈜천은엔지니어링, 350,000원-김선주, 500,000원-㈜유엔글로벌, 600,000원-이주형

물품 후원
관음성-햄, 식초, 올리브고양, 목장갑, 354-A지구 국제라이온스클럽-우산, 김밥, 파리바게트인덕원점-빵,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쌀, 의왕시청-쌀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보보시 도량 (步步是道場)

곧은 마음은 곧은 도량도량이다
도량도량이 몸을 단련하는 곳이듯 도
량도량은 마음 닦는 곳이다. 한자로는
모두 '도場'인데 발음 따라 마음을 닦
고 몸을 단련하는 곳으로 나뉜다.
꼬부라진 마음은 도량이 못 된다. 구
긴 마음을 곧게 한 울 한 울 닦는다.
곧은 마음이 다름 아닌 도량이라니
<유마경> 보살품에서 한 말이다.
광명동자가 유마힐에게 문병갔을 때
유마힐 거사께서 던지신
말이다.
이리 아름다운 말이
또 있을까? 곧은 마음이
곧 부처라더니 끝내는
부처를 이루는 도량조차
꼬부라진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한다.
곧은 마음이 도량이라
더니 유마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한다. '보보시
도량(步步是道場)'이다.
걸음걸음이 곧 도량이란
거울(鏡)에 비친 달(月)도 있다. 카메라
에 다양하게 잡힌 달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림자일 뿐이다. 수월(水月),
경월(鏡月)은 그림자다. 하늘에 뜬 달
의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분신(分身)도
몸이다. <지장경> '제2 분신집회품'에
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수천만 억에 수천만 억을 곱하고 이
를 다시 수천만 억 번이나 제곱한 헤
아릴 수 없는 지장보살 분신이 지장
유마힐 거사께서 던지신
말이다.
보살 분신과 동일하다
고 곧은 마음은 어떻게
판단할까? 마음은 실제
가 없는데 마음이 곧은
지 꼬부라졌는지 판단
할 방법이 과연 있기는
할까? 느낌 체계에서는
얼마든 가능하다. 언어
가 참되고 실(實)답고
언제나 늘 동일(一如)하고
속임 없고 다름(異)이 없
다면 언어 하나만으로
도 뜻을 수 있다. 도량은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마음은 좁고 넓은 공간 넘어 무한대 시간 표현

말, 행동 하나 하나 연마하여 행복해지길...
말이다. 마음이 곧지 않고 언어가 곧지
않고 행동이 곧지 않고는 마음 닦을 도
량이 될 수 없다.
불교에서는 선불장(選佛場)은 있어
도 도장(道場)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몸을 닦는 도장이기에 앞서 마음 먼
져 닦으라는 걸까? 마음만이 아니다.
바른말과 곧은 언어 소담하며 반듯한
몸가짐 자애가 넘치는 소박한 표정을
떠나 도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월도량(水月道場)이란 말이 있다.
수월(水月)은 달이 아니라 바다와
호수에 비친 달이다. 강과 찾잔에 내린
달이라 수월이라고 한다.
분명 도장과 마찬가지로 공간적 시간
적 의미를 내포(內)한다. 그런데 곧
은 마음이 도량이다.
마음은 좁고 넓은 공간을 뛰어넘어
무한대의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데 꼬부라진 마음에서는 꼬부라진 현
상이 드러나고 곧은 마음에서는 곧게
드러난다.
그래서 마음을 도량이라 한 것이다
삼복(三伏)더위에 자기 자신의 도량을
더욱 더 연마하여 더위도 이기고 수행도 나
태하지 않고 건강도 챙기면서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무지장보살마하살

생활의 지혜

- 고구마 빨리 삶는 때는 다시마 이용
통째로 고구마를 삶게 되면 시간이 너
무 오래 걸리면서 연료 소모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 맛도 떨어진다.
다시마를 조금 넣어 함께 삶으면 놀랄
정도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맛있게 삶이진
다.
이는 다시마에 포함된 성분이 고구마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며 빨리 삶아지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리 황청량님>
화분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마늘
화분에 심어놓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다면, 시들시들할 때 마늘로 거름을 주
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두 컵 정도의 물에 마늘 반 통 정도를 으
개어 타서 조금씩 뿌려 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마늘이 가지고 있는 특수
한 작용에 의해 식물이 놀랄 만큼 잘 자란
다. <정리 황청량님>

12 zodiac signs horoscope section with icons and text for each sign: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이제 나의 운을
(運)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
과입니다.)

<정리 심 대덕님>